

# 國內最初の EDPS 碩士學位課程 成大 開設背景 및 發展過程

---

정 남 식

---

1960 年代初 우리나라는 革命政府의 「잘살아보세」 구호아래 새마을사업, 국민의식 개혁등 최소한의 대중경제 기반구축이 최우선 관제로서 개인당 國民所得이 \$100에 불과하며 “Computer가 뭐하는 것이냐”고 反問하는 時代였다.

그러나 軍에서는 장비의 현대화와 제반행정 科學化 및 自動化 政策 추진에 따라 육군본부 관리참모부에 자동자료처리 통제과를, 부관감실과 군수기지 사령부 및 중앙경리단에 각각 실무운영 처리기구를 創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6年 6月, 本人이 제5군단 지휘정비정보급검열단장 재임시 特命을 받고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창설과의 全軍電算化 추진 實務責任을 맡게되었다.

當時 國內에는 컴퓨터 교육기관이 全無하여 미8군 사령부에서 特別教育을 받으면서 밤도 잊은채 직무수행에 여념이 없었던중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軍援自 教育과는 별도로 軍 教育計劃 (MAP)에 의한 컴퓨터 도미유학과정 개설 추진과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서구 여러나라와 같이 大學에서의 EDPS 專攻 學位教育課程 新設이 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教育은 生命과 自由 다음으로 人類에게 주어진 祝福」이라는 百年之大計 次元에서 위의 特別教育制度 추진계획을 상부에 건의하였던 바 즉각 추진하라는 지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軍원교육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대학위탁 교육문제는 국내 어느 大學이 適格이나 하는 문제에 직면하자 그 이 무엇보다도 重要함을 깨닫고 市内 名門 綜合大學 몇 개를 골라 그 大學의 歷史와 傳統, 位置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成均館大學이 30여년 후면 創立 600周年이 될 뿐만 아니라 光復後 國立大學이 되었어야 했다는 結論이 나오자 아무도 異議提起를 하지 않고 낙착이 되어 成均館大學을 軍電算將校 委託 教育機關으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本人이 당시 경제개발대학원 徐南源 教授님을 비롯하여 權五翼 總長님, 李熙昇 院長님 외 여러분과 碩士學位과정 電算學科 開設方法 및 文教部認可節次등을 協議하는 과정에서 또한나의 기발한 着想이 떠올랐다. 그것은 1967年 당시 成大는 전산학과 설립 필수조건인 학생 실습용 범용 컴퓨터 (General Purpose Computer) 및 CRT Terminal Set를 수억원을 투자하여 외국으로부터 導入한다는 것은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빨라도 1年 이상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육군본부의 UNIVAC-9300 컴퓨터 시스템을 대학원생 실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約定하는 한편 成大는 육군참모총장이 위탁하는 電算將校를 장학생(수업료전액명제)으로 받아준다는데 合議하고 陸軍本部和 成均館大學이 産學提携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학에서 1967年 3月 창립된 경제개발대학원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文敎部로부터 電子資料處理學科(석사학위과정) 新設認可를 받게 되었던 歷史的인 숨은 背景을 뒤늦게나마 公開하게 되었음을 附言한다. 특히 학과설립 협의과정에서 徐南源 敎授님의 未來指向的인 信念과 役割에 感謝드리는 바이다.

따라서 1968년 3월 우리나라 最初로 成均館大學이 EDPS 碩士學位課程 第1期生을 모집하기 시작한지 31年の 세월이 흘러 현재까지 318명의 碩士와 27명(타 대학원 재수과정 포함)의 博士 외에도 148명의 1년제 専門연구과정생을 배출하므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情報化社會發展에 中추적 役割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EDPS학과 설립과정에서 난관이 많았던 一大宿願事業의 完決을 보게된 本人은 새로운 專門化敎育의 必然性을 깊이 認識하고 軍원敎育계획에 의한 도미유학 절차를 밟아 미국 New Jersey주에 있는 육군통신학교에서 Systems Analyst & ADPS Planning Officer's Course를 수료하고 1969年 3月 귀국 복귀하여 前軍 前산화추진업무에 전념하던중 1970年 3月, 제5기로 本 大學院에 入學하여 1972年

2月「EDPSDKDJFK投資 果測定에 關한 研究」論文으로 碩士學位  
를 받았는데 經濟開發學科 電子資料處理專攻이란 理由로 經濟學碩士  
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學位名이라 여겨진다.

1970年 11月, 대학생 소요가 전국적으로 극열하여 사회질서가 어  
지러워진다고 판단한 朴 政權은 각 대학 학훈단 예비역 장교를 전  
원 현역으로 교체하라는 特命을 내림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육군본부에서 成大學訓團副團長겸 教授部長으로 전격 발령되는 幸  
運을 맞게 되었다. (당시 육군중령)

전군전산화추진 및 통제업무에서 대학생 지도책으로 급회전된 本  
人は 在任期間中 總長님과 院長님께, 특히 教授會議석상에서도 대학  
원 및 학위명칭의 부당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바로잡기를 건의 하였  
으나 1973年에서야 경영행정대학원으로, 1975年에 미흡하나마 경영  
학석사로 개정된 역사를 회상케 한다.

끝으로 전자자료처리(전산학) 전공의 학위명을 전산학 석사로 정  
착시킴으로서 박사학위과정 진학절차상의 문제와 타 대학원에서의  
전공학위 재수가 불가피한 피해현상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教育部는 各大學校의 專攻分野別 學位名과 Curriculum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함과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주도적  
학문 전문분야를 심도있게 예측하므로서 教育政策 및 行政의 合理化  
와 先道化 전통유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